

# 모 양육태도 지각과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영 선 · 이 숙<sup>1†</sup>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대학원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sup>1)</sup>

##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and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Kim, Yeong-Seon · Lee, Sook<sup>1†</sup>

Graduate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sup>1)</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and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Data were collected from 416 fifth- and sixth-graders residing in Kwangju, Korea. Cronbach's  $\alpha$  a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were employ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best explained their subjective well-being. For individual factors, motivational self-control had the greates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followed by behavioral self-control, cognitive self-control, the level of income, gender, and the employment status, in that order. The results for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and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highlight. The important roles played by the mother and the child's self-control ability in improving the child's subjective well-being.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fundamental insights into children's higher quality of life.

Key word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elf-control ability, subjective well-being

### I. 서론

현대사회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야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사회

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거의 일상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동에게 있어서도 지식위주의 교육이나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또래관계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접수일: 2014년 4월 2일 심사일: 201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23일

†Corresponding Author: Lee, Sook Tel: 82-62-530-1323

e-mail: sookleej@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아동의 행복감이나 안정감과 관련된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한 개인이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신의 기능에 근거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개념이다(Keyes et al. 2002). 어린 시절의 행복한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아동기의 가소성을 고려했을 때 전 세대에 걸쳐 삶 전반에 긍정적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변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아동이 속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연구된 성별, 학년, 가정의 경제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과 관련된 연구들(Cheon 2005; Kim 2007; Joh et al. 2008; Hong 2010; Joo 2012)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학년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Joh et al.(2008), Lee(2011, Kim(2007) 등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의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했고, 하위요인별로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Shin 2007)는 연구도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본 연구들(Diener 2000; Kahneman et al. 2006; Kim 2007)도 경제수준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인데, Ham(1992)의 연구에서 일반모의 아동은 취업모의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가 부재중인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 연구(Jeon 2004) 등이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공한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도 상반된 견해나 연구결과가 많고 어

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별, 학년, 모의 직업유무, 경제수준 변인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형성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도가 높을수록(Kwon & Lee 1999), 부모-자녀 간에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Lee 2007), 그리고 통제와 애정이 적절히 균형 잡힌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Lee 2003; Hong 2010; Kim 2010; Joo 2012) 아동의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격형성과 사회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며 사회적 능력을 습득해 나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 양식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지만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양극화시켜 구분한 학자(Schaefer 1959; Symonds 1949)가 있는가 하면 양육행동의 특성으로 구분한 학자(Jersild 1952; Allport 1969; Hurlock 1978; Baumrind 1991)도 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30여년의 기록에 의존하여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간에 걸쳐 중단 연구한 Schaefer(1959)의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Oh & Lee(1982)이 유형화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하위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보다는 양육의 객체인 자녀가 그들 부모의 태도를 그들의 심리적 장(field)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Lee 1997; Joh 2003; Kwon 2003; Ham 2005; Yoon 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

동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조절능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Heo 2003), 인간은 수많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세상에 적응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동은 청소년이 되어서도 또래에 비해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기-신뢰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건강한 삶을 경험하며(Mischel et al. 1988),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Dodge 1991) 보고되고 있다. Jeong & Lee(2008), Kim(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력이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지며, 자신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이 자기조절을 잘 한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다(Diener 1984; Ryff 1989; Kim et al. 2001; Moon 2007; Jeong & Lee 2008; Kim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소로 나누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시기는 자아가 성장하여 자아개념이 확고해 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에 비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보다 잘 변별하고 선택의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Wui 1991). 따라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청소년기 이전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한 주관적 안녕감은 다음 단계로의 발달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영향을 주는 밑바탕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초기에는 노인이나 성인의 안녕감에 주로 관심을 두다가 차츰 아동기로 그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Jeong & Lee 2008).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5개구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모의 양육태도 척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척도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Section	N(%)	Variables	Section	N(%)
Gender	Male	211(50.7)	Mater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7(1.7)
	Female	205(49.3)		High school	86(20.7)
Grade	5th	195(46.9)		University	248(59.6)
	6th	221(53.1)		Graduate school or more	49(11.8)
Income level	Low	22( 7.3)	Paternal occupation	Specialty management	114(27.4)
	Average	167(40.1)		Office job	193(46.4)
	High	219(52.6)		Service	63(15.1)
Pater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6( 1.4)		Production	30( 7.2)
	High school	50(12.0)	Unemployed	4( 1.0)	
	University	267(64.2)	Maternal occupation	employed	252(60.6)
	Graduate school or more	59(14.2)		Unemployed	160(38.5)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 합계에 차이가 있음.

1) 주관적 안녕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은 Park & Song (2007)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1984)와 Diener et al.(2003), 그리고 Ryff(1989, 1995)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하여 개발한 Park & Hong(2004)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안녕감과 관련하여 긍정적 정서를 핵심으로 여기는 경향(Han & Pyo 2002)과 Park & Song(2007)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 활용방안에 근거하여 6개의 하위요인(정적 효능요인, 부적 효능요인, 정적 정서요인, 부적 정서요인, 정적 관계요인, 부적 관계요인) 중 긍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적 효능요인, 정적 정서요인, 정적 관계요인의 3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만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6점 Likert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전체 .92, 효능요인 .90, 정서요인 .95, 관계요인 .81로 나타났다.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Lym(1988)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질문지’를 기초로 하되 Park(2005)과 Heo(1999)의 척도를 참고로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즉, 애정-거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 하위요인별로 10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원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과 내용이 겹치는 21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문항을 ‘어머니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아동 자신이 질문을 읽고 그에 해당되는 것에 각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이며,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5점)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에 가깝고, 점수가 낮을수록(1점) 거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 양육태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애정-거부 .84, 자율-통제 .68, 성취-비성취 .75, 합리-비합리 .77로 나타났다.

3) 자기조절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Heo(2003)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기초

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Heo(2003)는 자기조절능력을 인지적(기억,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 동기적(능력에 대한 신뢰, 과거 경험과의 연계, 목표 조정), 행동적(충동성, 스트레스, 또래 압력, 감정)으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각 요인별로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분항을 수정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거하고 ‘나는 하던 일이나 공부를 끝낼 때까지 집중한다’라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인지적 요인 .82, 동기적 요인 .78, 행동적 요인 .66으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2년 6월 26일부터 2012년 7월 11일까지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하고 각 학년당 1~2학급씩을 다시 추출하여 남녀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모두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16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 학급의 교사에게 실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당선생님의 지도하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8	1												
3	.03	.08	1											
4	-.07	-.05	.05	1										
5	-.07	-.10*	.05	.28***	1									
6	.08	-.14**	.03	.21***	.57***	1								
7	-.08	-.09	-.01	.28***	.46***	.36***	1							
8	-.01	-.18***	.04	.26***	.68***	.62***	.43***	1						
9	.13**	-.07	-.03	.20***	.22***	.25***	.43***	.21***	1					
10	-.02	-.13**	-.02	.18***	.38***	.28***	.53***	.31***	.56***	1				
11	.10*	-.10*	.10*	.14**	.39***	.38***	.35***	.37***	.40***	.51***	1			
12	.04	-.02	.06	.27***	.31***	.28***	.44***	.27***	.58***	.64***	.53***	1		
13	.06	-.13**	-.06	.21***	.38***	.30***	.31***	.33***	.39***	.46***	.38***	.54***	1	
14	.19***	-.01	.13**	.23***	.37***	.31***	.39***	.33***	.35***	.49***	.43***	.56***	.59***	1
15	.11*	-.07	.10*	.28***	.42***	.35***	.45***	.37***	.52***	.63***	.53***	.82***	.86***	.84***

\*p<.05, \*\*p<.01, \*\*\*p<.001

1. Gender 2. Grade 3. Maternal occupational continuity 4. Income level 5. Affection-rejection 6. Autonomy-control 7. Achievement-nonachievement 8. Rationality-irrationality 9. Cognitive factor 10. Motivational factor 11. Behavioral factor 12. Efficacy factor 13. Emotional factor 14. Relational factor 15. Subjective well-being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Pearson 적률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r=.11, p<.05$ )과 모의 직업유무( $r=.10, p<.05$ ), 경제수준( $r=.28, p<.001$ )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아동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은 경제수준( $r=.27, p<.0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효능요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요인은 경제수준( $r=.21, p<.001$ ), 학년( $r=-.13, p<.01$ )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정서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요인은 경제수준( $r=.23, p<.001$ ), 성별( $r=.19, p<.001$ ), 모의 직업유무( $r=.13, p<.01$ )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이 관계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거부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 $r=.42,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거부와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요인( $r=.38, p<.001$ ), 관계요인( $r=.37, p<.001$ ), 효능요인( $r=.31,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자율/통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전체( $r=.35,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율적일 때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통제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요인( $r=.31, p<.001$ ), 정서요인( $r=.30, p<.001$ ), 효능요인( $r=.28,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성취/비성취는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 전체( $r=.45,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성취적일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비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 $r=.44, p<.001$ ), 관계요인( $r=.39, p<.001$ ), 정서요인( $r=.31,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합리/비합리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전체( $r=.37,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비합리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요인( $r=.33, p<.001$ ), 관계요인( $r=.33, p<.001$ ), 효능요인( $r=.27,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소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 $r=.52,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 $r=.58, p<.001$ ), 정서요인( $r=.39, p<.001$ ), 관계요인( $r=.35,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동기적 요소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 $r=.63,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동기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적 자기조절능력 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 $r=.64, p<.001$ ), 관계요인( $r=.49, p<.001$ ), 정서요인( $r=.46,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요소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 $r=.53,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 $r=.53, p<.001$ ), 관계요인( $r=.43, p<.001$ ), 정서요인( $r=.38, p<.001$ )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하위요인 가운데 성별, 학년, 어머니의 직업 유무, 경제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전체와 자기조절능력 하위요인 전체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 양육태도 지각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전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이 모두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그 범위가 1.0~2.29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독립변인군의 투입순서는 기본적인 선행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사회학습이론이나 행동주의 입장에서 자기조절의 발달이 모델이나 부모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예언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선행연구(Yoon 2007; Kim 2012)들을 바탕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 1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4.82, p<.001),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약 13%를 설명하는 것은

Table 3.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rade	-.15	-.10*	-.06	-.04	.02	.01
	Gender	.17	.12*	.20	.14**	.12	.08*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13	.09	.11	.08	.11	.07*
	Income level	.31	.32***	.16	.16***	.14	.14***
Perceived child-rearing-attitude	Affection-rejection			.18	.19**	.10	.10
	Autonomy-control			.09	.09	.03	.02
	Achievement-nonachievement			.27	.26***	.02	.02
	Rationality-irrationality			.04	.05	.05	.05
Self-control	Cognitive factor					.16	.15**
	Motivational factor					.37	.35***
	Behavioral factor					.24	.18***
F		14.82***		23.07***		40.38***	
$\Delta R^2$				.19***		.21***	
R <sup>2</sup>		.13***		.32		.53	

\*p<.05, \*\*p<.01, \*\*\*p<.001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 $\beta=.32, p<.001$ ), 성별( $\beta=.17, p<.05$ ), 학년( $\beta=-.10, p<.05$ )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독립변인에다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3.07, p<.001$ ),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3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9%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성취/비성취( $\beta=.26, p<.001$ ), 애정/거부( $\beta=.19, p<.01$ ), 경제수준( $\beta=.16, p<.001$ ), 성별( $\beta=.14, p<.01$ )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변인에 자기조절 변인을 추가하여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0.38, p<.001$ ),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 대해 5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2단계에 비해 21%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조절 변인들의 상대

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양육태도변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기적요인( $\beta=.35, p<.001$ ), 행동적요인( $\beta=.18, p<.001$ ), 인지적요인( $\beta=.15, p<.01$ ), 경제수준( $\beta=.14, p<.001$ ), 성별( $\beta=.08, p<.05$ ), 모직업유무( $\beta=.07, p<.05$ ) 순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모형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양육태도 변인들의 영향력이 모형 3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양육태도 변인의 영향력을 자기조절 변인의 영향력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인지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성별, 모 직업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 양육태도 지각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1) 효능요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4의 모형 1에서 효능요인에 연구대상자

Table 4.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icacy factor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rade	-.07	-.04	.02	.01	.11	.07
	Gender	.05	.03	.08	.05	-.05	-.03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09	.05	.08	.05	.08	.05
	Income level	.33	.30***	.19	.17***	.15	.14***
Perceived child-rearing-attitude	Affection-rejection			.05	.05	-.05	-.05
	Autonomy-control			.15	.12*	.05	.04
	Achievement-nonachievement			.39	.33***	.06	.05
Self-control	Rationality-irrationality			-.00	-.00	.01	.01
	Cognitive factor					.30	.26***
	Motivational factor					.40	.33***
	Behavioral factor					.34	.23***
	F	10.31***		16.20***		43.21***	
	$\Delta R^2$			.15***		.30***	
	$R^2$	.09***		.25		.55	

\*p<.05, \*\*p<.01, \*\*\*p<.001



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31, p<.001), 효능요인에 대해 약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β=.30, p<.001)만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투입변수에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효능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20, p<.001), 효능요인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5%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성취/비성취(β=.33, p<.001), 경제수준(β=.17, p<.001), 자율/통제(β=.12,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투입변인들에다 자기조절 변인을 추가하여 효능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43.21, p<.001), 효능요인에 대해 5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2단계에 비해 30%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조절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전체 주관적 안녕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태도변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기적(β=.33, p<.001), 인지적(β=.26, p<.001), 행동적(β=.23, p<.01), 경제수준(β=.14, p<.001) 순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양육태도 변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양육태도 변인의 영향력을 자기조절 변인의 영향력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효능요인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인지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2) 정서요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5의 모형 1에서 정서요인에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Table 5.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motional factor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rade	-.30	-.16**	-.21	-.11*	-.14	-.08
	Gender	.13	.07	.16	.08	.08	.04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1	.06	.08	.04	.09	.05
	Income level	.31	.24***	.16	.13**	.14	.11*
Perceived child-rearing-attitude	Affection-rejection			.27	.22**	.20	.16*
	Autonomy-control			.10	.07	.04	.03
	Achievement-nonachievement			.15	.11*	-.08	-.06
Self-control	Rationality-irrationality			.07	.06	.08	.06
	Cognitive factor					.19	.14**
	Motivational factor					.32	.23***
	Behavioral factor					.17	.10*
F		10.27***		13.48***		16.61***	
ΔR <sup>2</sup>				.12***		.10***	
R <sup>2</sup>		.09***		.21		.32	

\* p<.05, \*\* p<.01, \*\*\* p<.001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27, p<.001), 정서요인에 대해 약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β=.24, p<.001), 학년(β=-.16, p<.01)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투입변인에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정서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3.48, p<.001), 정서요인에 대해 2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2%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애정/거부(β=.22, p<.01), 경제수준(β=.13, p<.01), 학년(β=-.11, p<.05), 성취/비성취(β=.11,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투입변인에 자기조절 변인을 추가하여 정서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61,

p<.001), 정서요인에 대해 3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2단계에 비해 10%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조절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동기적(β=.23, p<.001), 애정/거부(β=.16, p<.05), 인지적(β=.14, p<.01), 경제수준(β=.11, p<.05), 행동적(β=.10,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정서요인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인지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행동적 자기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3) 관계요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6의 모형 1에서 관계요인에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2.94, p<.001), 관계요인에 대해 약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Table 6.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al factor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rade	-.07	-.04	.02	.01	.08	.05
	Gender	.31	.19***	.35	.22***	.32	.20***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19	.11*	.17	.10*	.16	.09*
	Income level	.29	.26***	.14	.12**	.13	.12**
Perceived child-rearing-attitude	Affection-rejection			.22	.20**	.14	.13*
	Autonomy-control			.03	.02	-.01	-.01
	Achievement-nonachievement			.28	.23***	.10	.08
Self-control	Rationality-irrationality			.06	.05	.05	.05
	Cognitive factor					-.03	-.02
	Motivational factor					.38	.32***
	Behavioral factor					.20	.14**
F		12.94***		18.23***		21.27***	
ΔR <sup>2</sup>				.16***		.10***	
R <sup>2</sup>		.12***		.27		.37	

\* p<.05, \*\* p<.01, \*\*\* p<.001

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 $\beta=.26$ ,  $p<.001$ ), 성별( $\beta=.19$ ,  $p<.001$ ) 모 직업 유무( $\beta=.11$ ,  $p<.05$ )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변인 이외에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관계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8.23$ ,  $p<.001$ ), 관계요인에 대해 2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6%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성취/비성취( $\beta=.22$ ,  $p<.01$ ), 성별( $\beta=.13$ ,  $p<.01$ ), 애정/거부( $\beta=.11$ ,  $p<.05$ ), 경제수준( $\beta=.11$ ,  $p<.05$ ), 모 직업 유무( $\beta=.22$ ,  $p<.01$ )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변인 이외에 자기조절 변인을 추가하여 관계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1.27$ ,  $p<.001$ ), 관계요인에 대해 3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2단계에 비해 10%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조절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beta$ 값을 비교한 결과 동기적( $\beta=.21$ ,  $p<.001$ ), 성별( $\beta=.20$ ,  $p<.001$ ), 행동적( $\beta=.14$ ,  $p<.01$ ), 애정/거부( $\beta=.13$ ,  $p<.05$ ), 경제수준( $\beta=.12$ ,  $p<.01$ ), 모 직업유무( $\beta=.09$ ,  $p<.05$ ) 순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관계요인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성별, 행동적 자기조절,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경제수준, 모의 직업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 435명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16부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분석 및 도구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효능요인의 수준이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고, 학년이 낮을수록 정서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의 관계요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율적일수록, 성취적일수록, 합리적일수록 전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 이는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 모두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의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동기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전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 이는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 모두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53%였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인지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성별, 모 직업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기조절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자기조절능력이 양육태도

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별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효능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55%였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인지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2%였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인지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행동적 자기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7%였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성별, 행동적 자기조절,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경제수준, 모의 직업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자기조절능력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적 자기조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고 과거 경험과 현재의 의사결정을 연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불안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실패와 성공 경험의 균형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이나 협력의 경험과 현실적인 목표설정의 기회를 통해 효능감과 현실감을 길러줘야만 안정감을 비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지적 자기조절은 효능요인과 정서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요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기조절은 기억과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사려적으로 계획하는 능력과 평가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능요인의 과제 해결과 능력에 관한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정서요인에서의 편안함과 성취감과 관련하여 인지적 자기조절이 높은 아동은 성공의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서 정서요인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보인다. 반면, 관계요인은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관계와 유지에서 오는 안정감으로,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면과 개인의 성격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셋째,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성취/비성취 요인과 애정/거부 요인은 자기조절 변인과 함께 투입했을 때 효능요인과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에서 그 영향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효능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성취 지향적이고 이를 아동에게 내면화시켰을 때, 또 지지와 격려 등을 통해 아동의 성취동기를 북돋워주었을 때 아동은 안녕감을 느끼게 되며, 동기적 자기조절력도 높아져서 스스로 안정되어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 성취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전체적 주관적 안녕감과 효능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계요인과 정서요인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에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요인과 정서요인에 대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기조절능력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이고 애정적으로 양육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체

계적인 보급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적 수준은 주관적 안녕감 전체뿐만 아니라 하위 요인들, 즉 효능요인, 정서요인, 관계요인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았을 때 환경적 자극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별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하위요인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효능요인에서는 자기조절 변인의 하위요인이 모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성취 가능성을 믿고 자신 있는 모습과 관련된 효능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요인에서는 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인 애정/거부가 동기적 요소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자기조절능력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받았다고 느꼈을 때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관계안녕에서는 다른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는 다르게 성별의 영향력이 비중 있게 나왔는데 이는 여자아이들이 감정을 교류하고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등의 특성이 남학생들보다 뛰어나고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어머니의 직업 유무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향

상시키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지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아동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취업모가 가진 변인들 중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측정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부와 모를 함께 보는 연구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거나, 부와 모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과 정서의 변화를 보이므로 유아기와 아동초기,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발달단계를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나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 척도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 3자의 평가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다양한 측정 도구 및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도 폭넓은 대상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 양육태

도의 영향력이 자기조절능력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 간의 방향성과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확인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동에게 부모는 심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에 더욱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의 국내 주관적 안녕감 연구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청소년기 이전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한 주관적 안녕감은 다음 단계로의 발달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영향을 주는 밀바탕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 아동기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아동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References

Allport G(1969) Patterns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 Early Adolescence* 11, 59-95  
 Cheon YH(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ppiness and stress level.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ener E(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Diener E, Oishi S, Lucas RE(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 Rev. Psychol* 54, 403-425  
 Diener E, Suh E, Lucas R,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odge KA(1991)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and K.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rikson EN(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Ham MY(1992) A study on the children's perceived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future prospect of the working mothers and the non-working mother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Ham MY(2005) The relation of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by children to child depression.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n DW, Pyo SY(2002) Predictions of subjective well-being, Health perception and physical illness from emotional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 7(3), 403-427  
 Heo JK(2003) A study on the scal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 in the school age. Doctoral'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eo MY(1999)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Hong SP(2010) The study on the school burnout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gifted, the potential gifted, and the regular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9(1), 75-96  
 Hurlock EB(1978) *Child development*(6th ed.). New York : McGraw-Hill, 496-497  
 Jeon BR(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their children's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Gyeongnam University of Education  
 Jeong HY, Lee KH(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Control,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4), 167-179  
 Jersild AT(1952) *In search of self*. New York :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 Colleg Columbia University  
 Joh SA(2003)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maternal behavior, attribution style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Education

- Joh SY, Shin HY, Choi MS, Choi HY(2008) Announcement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 Are our children happy?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69-81
- Joo JY(2012) The effects of mothers'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child's optimism on child's subjective well-being : The examination of path model.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 Kahneman D, Krueger AB, Schkade D, Schwarz N, Stone AA(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 1908-1910
- Keyes CLM, Shmotkin K, Ryff CK(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 82, 1007-1022
- Kim HJ(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affects,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im KM(2010) The corelations between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in middle & high school : As Intermediation with egp-resilienc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KR(2012)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gulation ab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MS, Kim HW, Cha KH(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 15(2), 19-39
- Kim YH(2007)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happiness, personality types and parents-child communication patterns. Doctoral'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Kim YO, Hong JM, Kim SR, Kim KI(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rear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social ability.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1)
- Kwon DY(2003)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other's nurtu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child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chil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won JE, Lee SH(1999) The meta-analysis of juvenile delinquency variables. *The Korean Family Welf Association* 4(1), 79-101
- Lee EJ(2011)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on happiness and peer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Lee JM(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Doctoral'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KJ(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 Doctoral'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Lee YS(2003)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f Bringing up a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ym SH(198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Mischel W, Shoda Y, Peake PK(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 54, 687-696
- Moon ES(2007)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motivational variables rela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Educational Psychol Association* 21(2), 459-475
- Oh SS, Lee JS(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nurtu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child and emotional traits.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11(1), 10-32
- Park BK, Song JH(2007) Mutidimensional 2×3 factor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 Educational Psychol* 24(1), 235-253
- Park BK, Hong SP(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ubjective well-being scale. *Korean Educational Psychol Association* 18(3), 159-175
- Park JO(2005) The influence of mother's object relation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aggress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Ryff C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 73, 549-559
- Ryff CD(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 Personality and Soc psychol* 69, 4.
- Schaefer E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Shin MD(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ymonds P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Wui YH(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Studies on Students' Lives*, 9
- Yoon SH(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regulation of children and the perceived their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